

대구시 도시형 한옥의 녹지공간 구성 및 이용실태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omposition and utilization for Green Space of the urban traditional residences nearby downtown of Taegu

여 미 나
Yeo. Mi-Na
윤 재 웅**
Yoon, Jae-Woong

Abstract

This is a positive study for researching of the cognition, realities of composition and utilization, and requirements of the future about green spaces of the urban traditional residences nearby downtown of Taegu. This study is constructed to the actual and servey examination, and the subject areas were Sam-Duk-Dong and Su-Sung-D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weller more preferences anti-artificial and hearing than artificial and visually nature elements.
- 2) The best plant space was 'Madang', and the kind of best plant was ornamental. The main purpose of plants were admiration and to use as food.
- 3) The dweller's requirements rather hearing than visually elements, and they preference in indirectly method but they had subconsciousness about directly plant plan. Also they want to water space.

1.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 대도시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도심 주변부 주거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직장 및 교통, 편의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어 왔으나 상업, 업무용 건물의 급격한 수요와 함께 주변환경을 무시한 고밀 개발압력에 밀려 점차 자연환경과 유리되어 가고 있다.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거주자가 인식하는 녹지의 양은 주택의 질적

* 정희원, 대구효성가톨릭대 박사과정
** 정희원, 공학박사, 대구효성가톨릭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최근 도시주택의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주택의 녹지공간은 녹환경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의 도심 주변부에 위치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녹환경에 대한 인식정도와 녹지공간 구성 및 이용실태, 미래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2. 조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대구시 도심 주변부인 삼덕동과 수성동에 건립된 도시형 한옥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인식과 구성 및 이용실태, 미래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도시형 한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1) 한옥의 건축양식을 유지·계승하고 있고, 2) 현재 대구시의 도심 주변부에 위치해 있으며, 3) 도시화에 따른 환경악화에 대응하여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자료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과 그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얻어질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이들 지역의 한옥 10호를 표집하여 1996. 9. 25~9. 30일(6일) 간에 걸쳐 실측, 사진촬영, 면접 등을 통해 평면도와 녹지공간의 구성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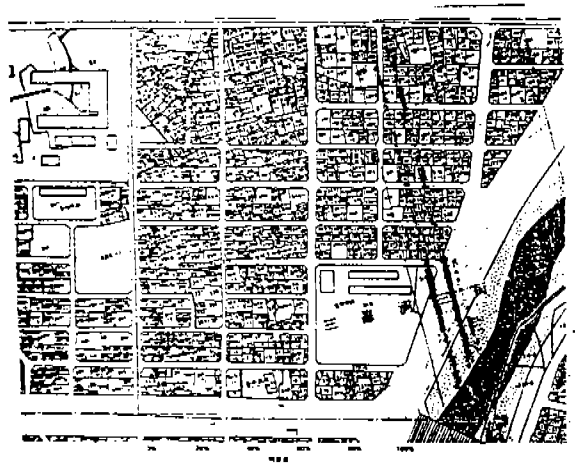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 1996. 10. 10~10. 18일 까지 훈련된 조사원들이 주부를 대상으로 80부를 배포하여 71부를 회수하였다.

3. 조사결과 및 고찰

1) 현장조사 결과

(1) 조사대상지역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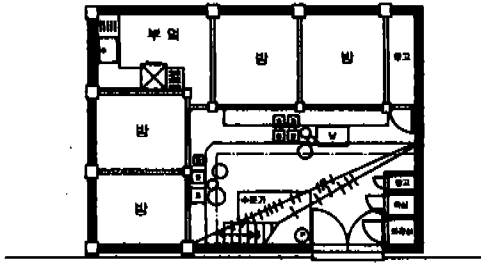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 중 삼덕동은 1940년 도시계획사업 중 대구시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지로 조성되었으며 그 후 1965년 도심지구정리사업에 의해 한옥주거지로 형성되었고, 수성동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5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주택지로 조성, 대구시가 이를 주택사업자들에게 분양하여 1972년까지 한옥주거지로 조성되었다.



(그림 1) 조사대상지역의 지적도(삼덕동)

이들 주거지는 모두 격자형 도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지는 정연한 장방형이다. 각 주호의 전체적인 배치는 기본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본채와 대문채로 구성되며, 대문채에 화장실, 창고 등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본채 평면은 서울지방에 보급된 도시형 한옥과 유사하게 좌측 꺾임부에 부엌을 두고 안방, 마루, 건너방을 일렬로 배치하고 있었으나 근래 부엌을 입식화하거나 세를 놓을 목적으로 실을 통합·증축하는 등 개조한 사례가 많았다.

이들 한옥의 평균 대지면적은 51.02평, 건폐율은 60.25%로 준거주지 건폐율 제한인 70%보다 낮아 옥외공간 확보율이 다소 높았다.



도 롬

삼덕동 277-6번지 1/100

(그림 2) 조사대상 주택의 평면도

(2) 녹지공간 구성실태

조사대상 주택의 녹지공간은 <표 1>에서 보는바 같이 마당·수목·화초, 본채 기단부나 부속사의 옥상-화분, 담장-넙쿨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당은 「화단」, 「화단+화분」, 「텃밭」, 「정원조성」 등의 다양한 녹지구성을 볼 수 있었으나, 마당의 많은 면적을 건물 증축이나 세탁, 건조, 장담그기, 운동 등 생활기능을 위해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마감하여 비워두고 있었다.

본채 기단부와 부속사 옥상에는 대부분 「화분」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택 본채나 부속사의 증축으로 마당이 협소한 가구에서 많았다. 녹화에 사용된 식물의 종류는 유실수나 관상용 수목, 화초류였고, 정원으로 조성한 경우에는 작은 연꽃과 분수, 수목 등으로 꾸미고 있었다.

<표 1> 녹지공간의 구성실태

조사 사례	주택공간의 면적	녹지공간 구성요소 및 방법				
		마당	기단 (테라스)	부속사 옥상	담장	담장
A-1	부속사증축	-	-	화분	-	-
A-2	-	화단 화분	화분	-	-	넙쿨 식물
A-3	본채수평증축	화단 화분	-	넙쿨 식물	-	넙쿨 식물
A-4	부엌입식화	화단 화분	-	-	-	-
A-5	부엌입식화	정원	-	-	-	-
B-1	본채수평증축·내부개조 부속사 증축	화분	-	화분	화분	-
B-2	본채수평증축	화단	화분	화분	-	-
B-3	본채수평증축 부엌입식화	텃밭	-	-	-	-
B-4	본채수평증축 부엌입식화	-	화분	화분	-	-
B-5	부엌입식화	화분	화분	화분	화분	-

(3) 녹지공간 이용실태
거주자들이 녹지공간을 어떻게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마당은 「화단」, 「화분」, 「화단+화분」, 「텃밭」 등으로 구성하여 놀이, 운동, 세탁, 건조, 등의 일



<사진 1> 녹지공간 이용실태

상생활기능과 더불어 자연을 감상하고, 식용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족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기단과 부속사의 옥상에는 「화분」을, 담장에는 넙쿨식물을 길러 주택 내·외부의 녹화와 더불어 가족의 「취미생활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설문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 미만이 34.8%

였고, 직업은 주부가 60%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62.9%, 전세가 32.9%로 였으며, 대지면적은 40~50평이 38.5%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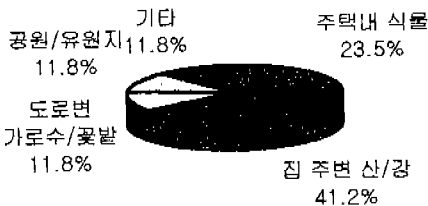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N=71, 단위:%)

속성	분류	백분율
연령	40세 미만	34.8
	40~49세	26.1
	50~59세	18.8
	60세 이상	20.3
직업	주부	60.0
	회사원/공무원/교직원	12.9
	자연업	2.8
	기타	24.3
주택 소유형태	자가	62.9
	전월세	32.9
	기타	4.2
대지면적	30평 미만	9.5
	30~39평	31.0
	40~49평	38.5
	50평 이상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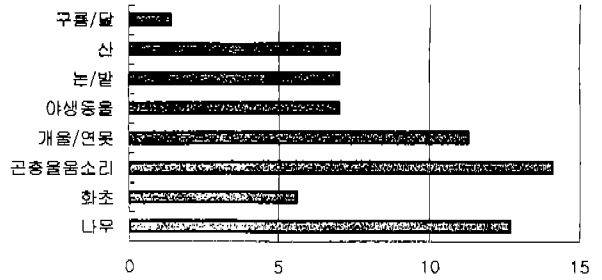
(2) 녹지공간에 대한 인식

거주자들이 생활주변의 어떤 곳에서 자연을 느끼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주변의 산이나 강이 41.2%, 주택내의 식물이 23.5%였고 그 외 도로변의 가로수나 꽃밭, 공원 등도 있었다.



(그림 3) 자연을 느끼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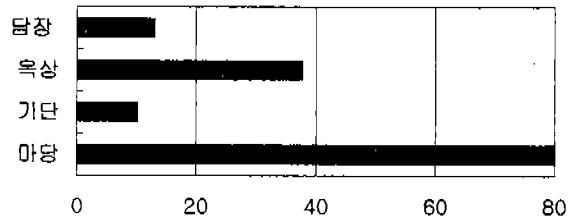
녹지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는 대상으로는 관충의 울음소리, 나무나 풀, 개울이나 연못, 야생동물, 꽃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림 4) 자연을 느끼는 대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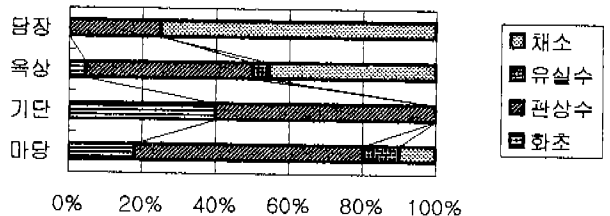
(3) 녹지공간의 구성실태

조사대상주택의 녹지공간 구성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녹지공간의 구성 장소·방법·재료 등을 파악한 결과 녹지공간 구성 장소로는, 마당이 8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옥상, 담장주위, 기단부 순이었다.



(그림 5) 식물을 가꾸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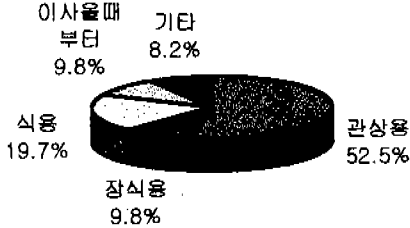
조성방법으로는 마당의 경우 「화분-화초류」, 「기단-수목식재」, 「텃밭-채소류」, 「정원조성」 등이었고, 기단과 옥상은 「화분-채소류, 화초류」, 담장주위는 「화분-넙쿨식물」 등이었다. 이들 녹지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자연물의 종류로는 관상수, 채소류, 화초류, 유실수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장소별 녹지조성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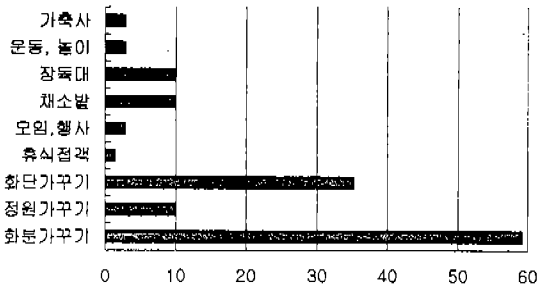
(4) 녹지공간의 이용실태

녹지공간을 구성하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52.5%로 가장 많고, 「길러 먹기 위해서」가 19.7%였으며, 「집을 꾸미기 위해서」, 「이웃에게 보이기 위해서」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림 7) 식물을 심는 이유

이를 장소별로 보면 마당의 경우는 대부분 세탁, 건조, 장담그기, 운동, 접객 등의 생활 기능을 위해 비워두고 부분적으로 「화단」, 「화단+화분」, 「텃밭」 등을 꾸며 일상생활과 더불어 자연을 감상하고, 식용작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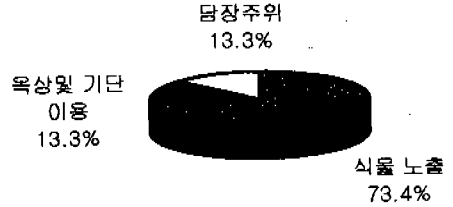
(그림 8) 마당의 이용실태

채배하거나 가족들의 취미생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기단과 부속사 옥상의 「화분-채소류, 화초류」는 식용, 관상, 특히 주택 내·외부의 녹화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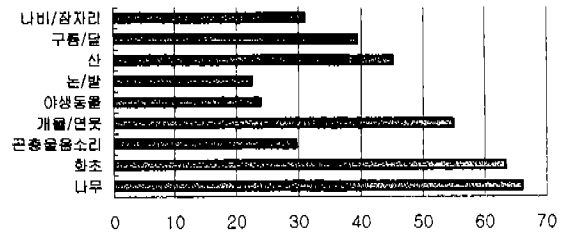
(5)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

조사대상 주택에 대한 녹화 방법과 소재, 마당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녹지공간 구성방법은 마당을 화단이나 정원으로 꾸며 「이웃과 함께 보고 즐기겠다」가 73.4%, 기단과 옥상에 화분을 두어 주택

내·외부를 푸르게 하겠다가 13.3%였고, 담장 밖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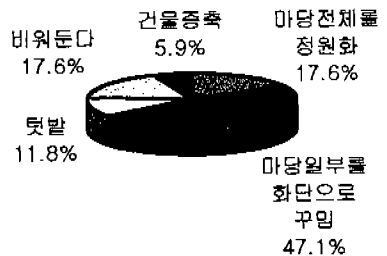


(그림 9) 녹지공간 구성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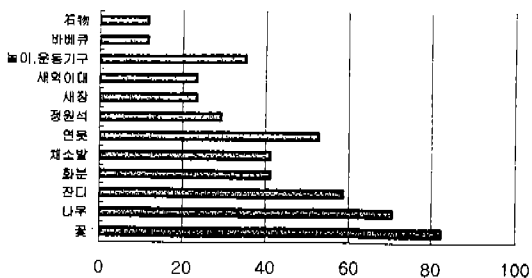
(그림 10) 자연물에 대한 요구

자연을 느끼기 위해 주택이나 주택지에 두고 싶은 것은 나무와 꽃이 각각 66.2%, 63.4%였고 개울/연못이 54.9%로 나타났고, 기타 곤충의 울음소리, 산이나 논밭, 구름이나 달 등으로 나타나 주택 내부의 녹지구성 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

마당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부를 화단으로 꾸미겠다」가 47.1%, 비워두고 화분을 둔다, 정원으로 꾸민다가 각각 17.6%로 나타났으며, 텃밭 조성, 건물 증축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림 12) 정원조성 소재

정원을 조성할 경우 사용할 소재를 알아본 결과 화초가 82.4%로 가장 많았고, 나무(70.6%), 잔디(58.8%), 연못(5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화분, 채소밭, 놀이/운동기구, 정원석, 새장, 바베큐 등 다양한 소재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형 한옥에서의 녹지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과 구성 및 이용실태, 미래 요구 등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도시형 한옥 거주자들이 자연을 인식하는 장소로는 주변의 산이나 강, 주택내 식물, 도로변 가로수나 꽃밭 등이었고, 대상은 곤충의 울음소리, 식물, 개울이나 연못 등이었다.

2. 조사대상 주택의 녹지공간은 주로 마당, 옥상, 담장 주위, 기단부 등에 조성되어 있었으며, 마당은 대부분 생활기능을 담기 위해 비워두고 부분적으로 「화단」, 「화단+화분」, 「텃밭」 등으로 꾸며 관상수, 채소류, 화초류, 유실수 등을 가꾸고 있었다.

3.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에서는, 마당을 화단이나 정원으로 꾸며 이웃과 함께 즐기거나 기단, 옥상을 화분으로 꾸며 취미생활, 주택 내·외부를 녹화하겠다는 요구가 높았다. 주거지에 두고싶은 자연물은 나무나 화초, 개울/연못 등이 많았고, 기타 곤충의 울음소리, 산이나 논밭, 구름/달 등으로 나타나 주택내·외부의 녹지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물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문헌

1. 강영환, 「집의 사회사」, 용진출판사, 1993.
2.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대구시, 1995.
3. 도시계획 연구회, 「도시계획 텍스트북」, 대우출판사, 1994
4. 안옥희·윤재웅·배정인,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1997.
5. 유영희·윤정숙, 「193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한옥 주공간과 주생활의 변화특성-1930년 이후 서울에 건축된 개량한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1권 3호, 통권 77호, 1995. 3.
6. 윤재웅, 도시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7권 1호, 1996.6.
7. 하재명·황보봉, 「도심 한옥주거지의 형성과 변화-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2호, 통권 86호, 1995.12.
8. 丸田東頁一, 「都市線地計劃論」, 丸善株式會社, 1983.